



科学技术圖書의 10年間 出版動向

孫 永 壽
〈電波科学社사장〉

◇ 머리말

최근 10年間の 科学·技術圖書出版 추세를 한 번쯤 살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그것은 1972년에 故 朴大統領이 「全國民의 科学化」를 제창한지 올해가 꼭 10年째라는 점과 이 運動의 意義나 昇華가 실제에 있어서는 어찌 되었건 간에 그래도 한 나라의 元首가 똑바로 「科学」을 들고 나서서 振興을 제창한 것은 모르는 하나 光復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에 意義가 있기 때문에 최근 10年간의 起点을 이해에다 두고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원고의 청탁이 왔을 무렵, 때마침 朴星來教授께서 조선일보에 「科学大衆化 불가능한가」라는 時論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 언급했던 科学의 大衆化, 土着化, 伝統化라는 과제가 出版과도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글도 그런 과제를 생각하는 데에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얼핏 보기에 出版界의 추세가 韓國의 科学·技術을 돌이켜 보고 내다 보는데 있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견해도 없지는 않겠으나, 圖書란 한 나라의 文化의 尺度요 그때 그때의 文化的 社会相을 가장 날카롭게 反映한다는 점에서는 결코 등한히

볼 수 없는 側面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도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애로와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극히 斷片的이고 皮相적인 관측에 그치게 된 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다만 科学·技術의 振興과 將來에 뜻을 두는 關聯人士들에게 이러한 側面을 통해서도 뭔가 깊은 洞察과 喫緊한 問題點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제시한 一部 자료에는 필요이상으로 細細한 數値를 든 느낌이 없지 않으나 이것은 이런 종류의 數値를 일상 쉽게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혹시 훗날의 參考가 될까하여 煩雜을 무릅썼다. 그리고 여기에 든 數値는 大韓出版文化協會와 日本의 公信力있는 出版年監에서 얻었으며 굳이 日本과의 對比를 피한 것은 가장 인접된 국가일뿐 아니라 상호간의 영향이 긴밀하게 관련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 최근 10年間の 추세

먼저 최근 10年間을 돌이켜 볼 때 韓國의 출판은 한마디로 크게 伸張, 發展했다는 것을(表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1) 最近 10年間の 分野別 圖書發行種數(初·重版 포함)

| 分野別 年度別 | 總類 | 哲學 | 宗教 | 社會科學 | 純粹科學 | 技術工學 | 藝術 | 語學 | 文學 | 歷史 | 兒童 | 學習參考書 | 計 |
|------------|-------|-------|--------|--------|-------|--------|-------|-------|--------|-------|--------|--------|---------|
| 1972 | 52 | 179 | 344 | 625 | 53 | 361 | 154 | 223 | 1,049 | 129 | 516 | 784 | 4,469 |
| 1973 | 136 | 277 | 468 | 1,014 | 83 | 682 | 343 | 340 | 1,730 | 353 | 792 | 905 | 7,123 |
| 1974 | 153 | 317 | 449 | 903 | 92 | 709 | 407 | 291 | 1,841 | 249 | 814 | 793 | 7,018 |
| 1975 | 228 | 337 | 601 | 1,005 | 135 | 779 | 481 | 430 | 2,481 | 211 | 1,609 | 1,468 | 9,225 |
| 1976 | 362 | 627 | 759 | 1,679 | 172 | 1,120 | 990 | 446 | 3,339 | 302 | 1,527 | 2,101 | 13,334 |
| 1977 | 278 | 960 | 874 | 1,710 | 273 | 1,218 | 814 | 471 | 3,421 | 344 | 2,155 | 1,857 | 14,375 |
| 1978 | 186 | 815 | 1,196 | 1,960 | 352 | 1,468 | 1,025 | 621 | 4,049 | 316 | 1,343 | 1,818 | 15,149 |
| 1979 | 160 | 785 | 1,465 | 1,984 | 345 | 1,699 | 1,242 | 764 | 4,524 | 429 | 1,879 | 1,875 | 17,151 |
| 1980 | 361 | 793 | 1,918 | 2,276 | 296 | 1,722 | 1,222 | 865 | 5,107 | 580 | 3,494 | 2,351 | 20,985 |
| 1981 | 360 | 1,194 | 1,979 | 2,907 | 533 | 1,927 | 1,422 | 1,351 | 5,525 | 604 | 3,724 | 2,457 | 23,983 |
| 計 | 2,276 | 6,284 | 10,053 | 16,063 | 2,334 | 11,685 | 8,100 | 5,802 | 33,066 | 3,517 | 17,313 | 16,409 | 132,812 |
| 平均順位 | 12 | 9 | 6 | 4 | 11 | 5 | 7 | 8 | 1 | 10 | 2 | 3 | |

1975년에 圖書發行總種數가 1萬種台을 돌파했다고 하여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후 불과 5년이 지난 1980년에는 2萬種台를 넘어섰다. 이것은 光復후 1萬種台에 이르기까지의 세월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엄청난 急進展이다. 그것이 또 1981년에 이르러서는 23,983種으로 늘어나서 이웃 日本의 같은 해의 圖書發行總種數 29,362種에 비하여 아직도 뒤떨어진 실정이다. 물론 뒤에서 보게될 圖書發行量(이것은 곧 讀者層의 두께를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에 있어서는 아직도 두드러진 격차가 있지만, 적어도 文化의 多樣性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들과 견주어 크게 손색이 없음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곧 우리의 國力과 文化의 伸張을 端的으로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근 10年間の 發展過程에서 가장 關心거리가 되는 科學·技術은 出版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어떻게 反映되고 있을까? 바람직스럽게도 技術科學(大韓出版文化協會의 圖書分類方式, 日本에서는 技術·産業으로 分類되고 있음) 分野는 圖書分類 12개 分野중 圖書發行總種數 5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70年代에 접어들어 技術立國, 工業立國의 표방아래 技術人力의 개발과 技術의 習得蓄積에 크게 힘썼다는 것과 모든 施策과 關心이 이 分野에 비중을 크게 두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 純粹科學, 즉 基礎科學分野에 있어서는 겨우 꼴찌를 면한 平均順位 11位에 머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技術에만 치중되고 基礎科學이 등한히 다루어져 왔다는 一面을 보게 된다. 그러나 數字的으로는 어느 분야도 다 그렇지만 科學分野도 後退없이 해마다 꾸준히 伸張되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1980년까지 줄곧 最下位에 머물러 있던 것이 81年度에 이르러서는 前年比 무려 80%이상의 急伸張을 보였음은 特記할 사실이다. 이것은 꼭 10년만에 거두어진 成果이고 1972年을 起點으로 할 때 꼭 10倍로 늘어난 것을 보여주며 伸張比率로는 오히려 技術科學分野를 앞서고 있다. 바꿔 말하면 科學分野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나 우리 技術이 模倣에서 創造로 변화하는 현상의 한 단면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최근 몇해 사이 識者사이에서 基礎科學의 落後性에 대한 우려가 심심찮게 표명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척 희망적인 추세라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여기서 附言하고 싶은 것은 81년도에 圖書目錄을 훑어보면 이른바 專門大·大學의 教材物이 여전히 總發行種數의 약 90%線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基礎科學의 진흥과 人

力養成에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편 科学의 大衆化, 그것에서 大衆의 科学에 대한 올바른 批判觀의 確立이라는 觀點에서는 뭔가 아쉽고 關聯人士나 특히 著述人, 出版人, 大衆이 다 함께 한번쯤 생각해 봄직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표-1>에서 특히 兒童分野를 의식적으로 들추어 본 것은 兒童物이 그 種數나 發行量에 있어 우리나라 圖書出版의 제2位(日本은 6位)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科学·技術이 여기서 어떻게 關聯되어 있는냐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兒童物의 10年間の 總發行量은 科·技分野를 합친 總量보다 훨씬 많으나 그 種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아쉽게도 兒童物에 대한 基本分類方式에 따른 分野別 細分 統計가 전혀 없다. 따라서 兒童物 중에서 科学

技術이 차지하는 比重을 분석할 수가 없다.

특히 科学은 어릴적부터 관심이 길러져야 한다는 견지에서 앞으로 兒童物에 대한 관심이 더욱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요즘 書店을 둘러보면 漫面物까지 곁들여 多樣한 科学(工作)物이 크게 늘어난 현상은 반가운 일이나 아직도 兒童物이 값비싼 全集類로 묶여 있어 書店에서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표-2>는 10年間の 發行種數와 發行량을 科学·技術圖書를 中心으로 集計해 본 것이다. (여기서 統計數字와 실제의 數字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表에서 發行種數 중에 특히 「訳刊」이라고 表示한 것은 물론 外國物의 翻譯版을 가리키는 것이며 일단 初版本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것을 굳이 밝혀본 까닭은 外國의 先進知識情報를 어느정도나 직

<표-2> 最近 10年間の 科学·技術圖書 發行趨勢

| 年度別 | 發行圖書總種數 發行圖書總部數 | 純 粹 科 学 | | | 技 術 科 学 | | | 兒 童(參考) | | |
|------|------------------------|-------------|---------|---------|-------------|---------|-----------|----------------|-------|----------------------|
| | | 初 版 (訳刊) | 重 版 | 計 | 初 版 (訳刊) | 重 版 | 計 | 初 版(訳刊) | 重 版 | 計 |
| 1972 | 4,469 10,858,145 | 44 (3) | 9 | 53 | 268 (22) | 93 | 361 | 461 (126) | 55 | 516 |
| 1973 | 7,123 15,761,524 | 61 (11) | 22 | 83 | 515 (26) | 167 | 682 (720) | (270) | 72 | 792 |
| 1974 | 7,018 13,651,124 | 74 (28) | 18 | 92 | 550 (62) | 159 | 709 | 698 (184) | 116 | 814 |
| 1975 | 9,225 24,418,058 | 113 (23) | 22 | 135 | 671 (39) | 108 | 779 | 931 (413) | 138 | 1,069 |
| 1976 | 13,334 37,636,853 | 140 (39) | 32 | 172 | 884 (39) | 236 | 1,120 | 1,052 (318) | 475 | 1,527 |
| 1977 | 14,375 37,811,790 | 211 (47) | 62 | 273 | 859 (59) | 359 | 1,218 | 1,077 (128) | 1,078 | 2,155 |
| 1978 | 15,149 58,536,520 | 255 (49) | 97 | 352 | 1,127 (56) | 341 | 1,468 | 1,076 (188) | 267 | 1,343 |
| 1979 | 17,151 60,063,952 | 228 (35) | 117 | 345 | 1,271 (54) | 428 | 1,699 | 1,538 (476) | 296 | 1,879 |
| 1980 | 20,985 64,609,972 | 202 (29) | 94 | 296 | 1,272 (41) | 450 | 1,722 | 2,353 (655) | 1,141 | 3,494 |
| 1981 | 23,983 73,127,664 | 349 (33) | 184 | 533 | 1,305 (54) | 622 | 1,927 | 1,484 (725) | 2,240 | 3,724 |
| | | 422,920 | 253,450 | 676,370 | 1,425,125 | 973,950 | 2,399,075 | | | 7,204,400 |
| | | | | | | | | ※初·重版別 發行部數 省略 | | |
| 計 | 132,812 396,475,602 | 1,677 (297) | 657 | 2,334 | 8,722 (452) | 2,963 | 11,685 | 11,390 3,483 | 5,878 | 17,313 33,503,550 |

※① 訳刊은 대체로 初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음.

■ 特輯 : 科學技術圖書을 왜 읽지 않는가?

접적으로 또 재빨리 受容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다. 물론 外書의 複寫版이나 一部 非売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訳刊의 數値는 <표-3>에

서 언급한 日本과의 對比에서도 資料的 가치가 될 것이다.

<表-2>에서 보면 種數와 量이 다같이 增加

<표-3> 最近 10年間の 韓·日 科學·技術圖書 發行狀況

| 年度 | 發行圖書總種數 | | 發行圖書總部數 | | 純粹科學(種數) | | 技術科學(種數) | | ※産業(種數) | | 兒童(種數) | |
|------|---------|---------|-------------|-----------|------------|---------------|-------------|-------------|---------|--------|--------|--------|
| | 韓國 | 日本 | 韓國(部) | 日本(千) | 韓國(訳) | 日本(訳) | 韓國(訳) | 日本(訳) | 韓國 | 日本 | 韓國 | 日本 |
| 1972 | 4,469 | 20,670 | 10,858,145 | 566,800 | 53(3) | 1,479 | 361(22) | 2,110 | | 953 | 516 | 1,647 |
| 1973 | 7,123 | 20,446 | 15,761,524 | 634,810 | 83(11) | 1,577 | 682(26) | 1,994 | | 918 | 792 | 1,421 |
| 1974 | 7,018 | 20,940 | 13,651,124 | 666,550 | 92(28) | 1,678 | 709(62) | 1,943 | | 1,028 | 814 | 1,296 |
| 1975 | 9,225 | 22,727 | 24,418,058 | 733,200 | 135(23) | 1,781 | 779(39) | 2,022 | | 1,008 | 1,069 | 1,503 |
| 1976 | 13,334 | 23,464 | 37,636,853 | 857,840 | 172(39) | 1,854(315) | 1,120(39) | 2,042(133) | | 950 | 1,527 | 1,695 |
| 1977 | 14,375 | 25,148 | 37,811,790 | 960,780 | 273(47) | 2,047(371) | 1,218(59) | 2,171(127) | | 1,139 | 2,155 | 1,924 |
| 1978 | 15,149 | 26,906 | 58,536,520 | 1,037,640 | 352(49) | 2,082(391) | 1,468(56) | 2,439(130) | | 1,180 | 1,343 | 2,173 |
| 1979 | 17,151 | 27,177 | 60,063,952 | 1,048,020 | 345(35) | 2,231(353) | 1,699(54) | 2,404(151) | | 1,159 | 1,879 | 2,113 |
| 1980 | 20,985 | 27,891 | 64,609,972 | 1,058,500 | 296(29) | 2,300(396) | 1,722(41) | 2,552(130) | | 1,129 | 3,494 | 2,102 |
| 1981 | 23,983 | 29,362 | 73,127,664 | 1,090,250 | 533(33) | 2,454(407) | 1,927(54) | 2,357(132) | | 1,029 | 3,724 | 2,258 |
| 計 | 132,812 | 244,731 | 396,475,602 | 8,654,390 | 2,334(297) | 19,483(2,233) | 11,685(452) | 22,034(803) | | 10,488 | 17,313 | 18,132 |

※訳은 初版中 번역물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圖書의 發行量이 公衆者(그 分野에 관심있는)에게 消化되는 實量이라고 速斷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대충은 그 分野에 관심을 갖는 사람의 두께를 헤아리게 하는 가늠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여기서 初版과 重版을 가른 것은 意慾的인 새로운 著述活動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냐는 면과, 특히 重版의 경우에는 讀者의 傾向, 그 著述物이 얼마나 오래 읽힐만큼 잘 쓰여졌느냐를 살펴보게 하는 한편, 安이하게 重版에만 의존하고 新刊活動이 停滯됨으로써 새로운 知識情報의 흡수가 둔화 내지 소외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하는 측면을 생각하게 하는 資料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日進月步라는 표현이 특히 科學·技術에 있어서 는 陳腐하게 된지 오래인 점에서는 다른 분야와는 좀 색다른 觀點에서 初·重版을 생각해 볼 적하다. 또 앞으로 언젠가는 國際著作權條約에 의 加入이 고려될 때 零細性을 면하지 못하는 우리 出版界, 특히 科學·技術圖書分野의 실정과 先進知識情報의 재빠른 흡수라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

된다.

◇ 科學大國과 科學小國

朴星來教授는 「科學大國」과 「科學小國」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또 그 격차가 해마다 벌어져 간다고 했다. 이 말은 科學·技術의 頭腦面에서 나 力量面 또는 經濟的 面에서 뿐만 아니고 出版이라는 側面에서도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것의 한 면을 <표-3>에서 살펴 보겠다.

<표-3>은 최근 10年間の 韓·日 科學·技術圖書의 發行種數를 두고 對比한 것이다. 우선 技術科學(日本에서는 技術·産業으로 分類) 분야를 볼 때 韓·日은 1:2의 대비를 보이고 있다.(日本의 技術만을 비교했다. 産業을 포함시키면 약 1:3이 된다.) 한편 純粹科學(日本은 自然科學으로 분류) 분야는 엄청나게 대략 1:8, 4로 그 격차가 두드러지게 벌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種數로 볼 때 科學이 11位, 技術이 5位로 兩者間에서도 큰 차가 있는

데, 日本은 科學이 4位, 技術이 5位로 양자의 격차가 거의 없다. 이것은 곧 日本의 基礎科學이 얼마나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동시에, 科學과 技術을 「表裏관계요, 또 唇齒의 相關關係를 가졌다」고 말하는 점에서 볼 때 그 균형이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日本의 1981年度の 分野別 圖書發行種數를 훑어보면 <표-4>와 같다.

<표-4> 1981년 日本의 圖書發行種數

| 順位 | 分野別 | 發行種數 | 順位 | 分野別 | 發行種數 |
|-----------|--------|-------|----|---------|-------|
| 1 | 社 会 科學 | 6,671 | 7 | 歷 史 | 1,921 |
| 2 | 文 學 | 5,822 | 8 | 哲 學 | 1,454 |
| 3 | 芸 術 | 3,448 | 9 | 產 業 | 1,029 |
| 4 | 自 然 科學 | 2,454 | 10 | 總 類 | 821 |
| 5 | 技 術 | 2,357 | 11 | 言 語 | 637 |
| 6 | 兒 童 | 2,258 | 12 | 學 習 參考書 | 490 |
| 計 29,362種 | | | | | |

<표-4>에서 볼때 特別 注目되는 것은 필자가 前에 「統計的으로 본 韓국의 圖書出版과 科學圖書」(1978, 科學著述人協會報 第1輯)에서 韓·日間の 對比를 시도했을 때 集計한 1977年度の 日本의 自然科學分野의 發行種數는 1,714種으로 7位, 技術이 1,606種으로 9位였던 것이 불과 4년후에 각각 4,5位로 크게 浮上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日本의 오늘날의 科學·技術은 出版分野에서도 이토록 飛躍的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基礎科學分野에 많은 重点이 두어지고 있다는 점, 그 科學分野에 있어서도 圖書目錄이 가리키는 바 教材·學術物과 大衆을 위한 教養的 啓蒙的 성격의 圖書가 거의 平衡을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한 訳刊이 하루 한種 이상 發刊되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에게 여러 모로 示唆하는 바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日本이 現在의 격차도 크다고 하겠지만 하루 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더욱 더 크고 깊은 격차가 벌어지리라는 것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 관련되는 문제점들

이상 몇가지 극히 斷片的인 數値를 두고 좁은 視野에서 살펴 보았으나 그러나 보는 이의 觀點에 따라서는 더 다른 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發行種數를 들어·출판의 다양한 內容性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出版統計를 분석하려면 이밖에도 圖書의 發行量, 版型, 定價, 面數, 讀者의 年令, 性別 지식계층, 著述人의 數와 집필경향, 著作物數, 訳刊物의 対象國, 言語別, 出版社, 書店 등등의 基本사항과 분류에 있어서도, 예컨대 科學이라면 物理, 化學, 生物 등등으로 더욱 세밀하고 充分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위에서 우리의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相關문제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다만 최근 10年間的 科學기술 도서출판의 추세를 살펴 보는데 그쳤다.

이상과 相關하여 科學·技術圖書出版의 振興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즉 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한 科學·技術圖書出版에 대한 基本的 育成, 支援方案, 나아가서는 企劃·編輯의 自律性確保를 基調로 하는 國家財源에 의한 科學·技術圖書公社의 모색 ● 바람직한 科學·技術圖書의 출판과 大衆化문제 ● 특히 兒童物에 있어서의 科學·技術分野의 반영 ● 科學技術用語의 통일과 토착화 ● 著述人의 개발과 유능하고 전문적인 편집자, 일러스트레이터의 양성 ● 讀者底辺의 확대책 ● 科學技術圖書의 소개와 권장 ● 海外著作權의 사용지원 ● 최근 科學著述人協會에서 추진 중인 科學著述賞 制度의 실현 등등을 들 수 있다. 최근 10年間的 趨勢를 살펴볼 때 이제 이런 基本的인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 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時機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어쨌든 위와 같은 술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發展的, 希望的 추세를 바탕으로 작년에는 종래의 月刊 『학생과학』, 『電子科學』 등 말고도 새로 『사이언스』 『週刊科學』 『電子時報』

■ 特輯 : 科學技術圖書를 왜 읽지 않는가?

등의 科學·技術 情報媒体가 연달아 창간되어 이들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큰 것이다.

사사로운 일이지만 필자로서는 한층 유다른 感慨가 있다. 위의 것들은 필자가 月刊『科學과 生活』 週刊『科學新聞』 『電波新聞』등을 創刊하여 뜻을 펴지 못하고 쓸어진지 약 20여년 만에 그 공백을 메꾸고 등장했기 때문이다.

최근 10年間의 우리 科學·技術圖書分野는 前과는 달리 이제 이런 媒体들이 능히 存立해 갈 수 있는 基盤을 쌓고 확대되어 온 결과인 것 같다.

여기서 雜誌類에 말이 미친 김에 參考로 덧붙이면 日本에서는 1981년도의 雜誌 總發行種數가 3,338種인데 그중 自然科學誌 60種, 工學誌 449種이 일반을 상대로 발행되고 있고, 中共에서는 對象層과 商業的인 性格誌인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雜誌 總發行種數 2,191種 중

科學·技術誌가 1,384種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자주 引用하는 朴教授의 時論에서 「최근의 全國人民代表會議에서 中共이 다시 한번 科學技術 受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지적과도 符合되는 現象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표-5>와 같이 世界 主要國의 科學技術圖書의 發行種數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면서 두서없는 글을 맺는다.

<표-5> 세계 주요국의 과학기술도서 발행종수

| 分野別 國別 | | 總發行種數 | 科學 | 技術 | |
|-----------|-----|--------|-------|--------|-------------------------|
| 미 | 국 | 42,377 | 3,109 | 5,629 | 1980年 |
| 소 | 련 | 51,227 | 9,359 | 25,019 | 1980年, 別途 農·醫學 9,632 |
| 영 | 국 | 43,083 | 3,270 | 3,564 | 1981年 |
| 프 | 랑 스 | 26,635 | 1,847 | | 1980年 |
| 서 | 독 | 54,572 | 3,441 | 6,413 | 1980年 |
| 중 | 공 | 15,669 | 5,715 | | 1980年 |

바로잡음

7월호(158호) p. 57 右段 上 12行 「동양인으로서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동양인으로서서는 최초로 Tenure를 받았다」의 誤識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投稿案内

- =論 壇= 가. 學術論壇: 産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國內外的 最新 科學技術
나. 學術情報: 새로운 海外的 科學技術 情報 紹介
- =固 定 欄= 가. 隨 感: 生活周邊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事例中 科學技術的
인 내용을 소재로 한것.
나. 漫畫: 科學技術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한것.
- =原稿枚數= 가. 論壇, 기타 原稿: 24枚内外 (200字 원고지)
나. 科學隨感: 15枚内外 (200字 원고지)
다. 寫眞: 1枚 (명함판)
- =其 他= 外來語表記는 文敎部에서 指定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도량형은 政府
가 指定한 도량형法인 미터法으로 표기해야 함. (採擇된 원고에는 所
定の 原稿料를 드립니다.)
- =보 낼 곳= ㉠㉢㉤ 서울특별시 江南區 驛三洞 76-561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編輯部